

Q&A 7월 1주차 — 네트워크 효과와 AI 독점, 4가지 반론 검증

2026-06-29 · 박종훈의 지식한방 · qna_part5_03

구독자가 강의 논지를 네 방향에서 반박했다. 강사의 답은 반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이 생길 자리를 한 층 위로 옮겨 놓는 것이었다.

01 핵심 골격

- 1 질문이 곧 반론이다 — 오픈소스 상용화 / 반독점 규제 / 락인 불가 / 에이전트 메타레이어 네 가지로 「네트워크 효과 = AI 최대 승자」 논지를 반박했다
- 2 네 반론의 공통 타겟은 모델층이다 — 가치사슬은 컴퓨트·모델·통합배포 3층이고, 가치는 양 끝에 모여 가운데는 상품화된다
- 3 지금 모델을 만드는 쪽은 실제로 적자다. 강사는 이 지점에서 반론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4 IPO를 서두른다는 건 돈이 없다는 신호다 — 조기 상장은 지분이 희석돼 오너에게 불리하다
- 5 1981년 IBM은 CPU를 인텔에, OS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고 최종 조립을 택했다. 멍청해서가 아니라 1920년대 자동차 산업의 통념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 6 가치는 양 끝으로 갔다 —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진을 가져갔고, IBM은 대만 OEM과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
- 7 AI에 겹쳐 놓으면 모델은 정확히 PC 시대 완제품(IBM)의 자리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IBM이 자동차를 복사했던 오류와 같다

- 8 오픈소스 데이터는 반론 편이다 — 개방·폐쇄 성능 격차 8%→1.7%, 추론비 280배 하락, 딥시크 비용 약 1/30
- 9 그러나 리눅스는 공짜였는데도 PC O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지 못했다 — 한번 락인되면 공짜라도 갈아타지 않는다
- 10 리눅스의 진짜 역설 — 공짜 오픈소스를 아마존이 채택해 AWS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독과점이 강화됐다. 모델이 싸지면 독점 단계가 한 층 위로 올라간다
- 11 IT 때 사후 규제는 실패했다 — 구글이 유럽 검색 시장 약 95%를 장악한 뒤였고, 결과는 소비자 불편과 간접비용 증가였다
- 12 규제가 독점을 막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 규제는 항상 후행이라 우회 기술이 쏟아지고 / 태동 단계엔 독점 증거가 없어 반독점법을 못 쓰고 / 미·중 패권 논리가 자국 챔피언 보호로 기운다
- 13 모닝스타가 132개 해자를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AI로 붕괴한다고 나왔다 — 특히 전환비용 해자
- 14 그러나 AI가 부순 것은 IT 시대의 해자다. AI가 만들 새 해자를 미리 부순 것이 아니다
- 15 AI가 만들 진짜 해자 4종 — 네트워크 효과 / 피드백 루프(쓸수록 좋아지는 눈덩이) / 배포·번들(끼워팔기) / 신뢰·규제
- 16 제미나이 5TB 끼워팔기 — 강사가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저장 용량이다
- 17 층이 많아질수록 보안 구멍이 늘어난다 — AI와 나눈 대화가 유출되면 아이디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18 1995년 넷스케이프는 점유율 90%였지만 윈도우에 무료 탑재된 IE에 무너져 1999년 매각됐다. 성능은 넷스케이프가 더 좋았다는 것이 강사 평가다
- 19 그런데 그 번들 독점도 크롬이 뒤집었고, 지금 그 크롬이 반독점 압박을 받는다 — 어제의 파괴자가 오늘의 독점이 된다
- 20 독점이 생길 자리는 미확정이다 — 모델층·응용통합층·아직 없는 신형 메타레이어 모두 가능하며, 그래서 분기별 재채점이 중요하다

- 21 불변 기준은 인간 밀착도 — 누적 맥락·신뢰·습관·관계·피드백. 수단이 무엇이든 인간에게 밀착하는 쪽이 락인을 만든다
- 22 앞으로 5년은 엮치락뒤치락하고 독점 기업은 5~10년 뒤에 나타난다. '모델은 희망 없다'는 반대 방향의 단정도 경계해야 한다

02 최신 지표 보강 (2026-09-08 (회차 기준일 2026-06-29 전후 확인))

"8% → 1.7%"의 출처와 그 후 — 격차는 과제별로 갈렸다

MMLU 격차 17.5점 → 0.3점 (2025.12)

강의 수치는 스탠퍼드 AI Index가 2025년 2월 보고한 아레나 대결 격차다. 이후 더 좁혀졌지만 2026년의 그림은 더 복잡하다. 최상위 오픈웨이트 모델은 프론티어 폐쇄 모델을 평균 4개월 시차로 따라가며 종합 지수로 8포인트 뒤진다. 코딩·요약·구조적 추출에서는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추론 중심 벤치마크에서는 3~8%p 뒤지고 장문 검색에서 가장 밀린다. 2026년 5월 기준 가격은 6~7배 저렴하다.

출처 · digitalapplied.com

OpenAI S-1의 실제 숫자 — "돈이 없다"는 읽기는 맞았다

2026 1분기 조정 영업이익률 -122%

2026년 6월 8일 S-1을 비공개 제출했고 목표 기업가치는 8,520억~1조 달러다. GAAP 누적 손실 620억 달러, 매출 1달러당 1.22달러를 잃는 구조다. 2025년 매출 200억 달러였으나 2026년 손실 전망 140억 달러, 2029년까지 누적 최대 1,150억 달러, 흑자 전환은 2030년경으로 본다. 다만 상장 시기는 미정이며 오히려 2027년 쪽으로 기운다는 관측이다.

출처 · forbes.com

구글 EU 과징금 29.5억 유로 — 브뤼셀의 네 번째 제재

2025-09-05 · €29.5억

2012년부터 이어진 애드테크 조사의 결론이다. 자사 광고거래소 AdX를 자사 퍼블리셔 광고서버 DFP의 선택 과정에서 우대하고 광고 구매 도구의 입찰에서도 AdX를 우대한 자기우대가 문제가 됐으며, 위원회는 이 행위가 최소 2014년부터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60일 내 시정안을 내야 한다. '규제는 반복되지만 지배는 유지된다'는 회차 논지와 겹치는 대목이다.

출처 · cnbc.com

크롬 분할은 실제로는 기각됐다 — 지금은 항소 단계

2025.9 매각 명령 기각 → 2026.1 항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구제 단계에서 크롬 매각을 기각했다. 명령된 것은 경쟁사에 대한 검색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중단이며, '분할은 다른 구제수단이 불충분할 때에만 대단히 신중하게'라는 판례가 근거였다. 다만 구글이 2026년 1월 16일 항소했고 법무부가 2월 3일 교차항소로 강제 분할을 다시 요구했다. 항소심은 2026년 말~2027년 초로 예상된다.

출처 · npr.org

03 한국 투자자 — 예의주시 신호 3가지

- 01 **단정하지 말 것** — 강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모델층이 이길지, 응용·통합층이 이길지, 아직 없는 새 층이 나올지 모두 열려 있다.
 - 02 **분기별로 다시 채점할 것** — 독점이 나타나는 순간을 초반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사의 이유다.
 - 03 **앞으로 5년간 계속 관찰할 것** — 강사는 5년간 옆치락뒤치락하고 독점 기업은 5~10년 뒤에 나타난다고 본다. 반대 방향의 단정, 즉 "모델은 희망 없다"도 경계한다.
-

Fanding @kpunch · qna_part5_03